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에 의한 발도르프(Waldorf) 학교의 음악교육¹⁾

함 희 주*

차 례

- I. 서 론
- II. 본 론
 - 1. 학교연혁
 - 2. 슈타이너의 인지학
 - 3. 음악교육의 목적 및 철학
 - 4. 슈타이너의 음악관
 - 5. 기질론과 음악교육
 - 6. 음악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 7. 오이리드미
 - 8. 교사교육
- III. 결 론

I. 서 론

본 논문은 20세기 독일 교육사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한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이념

* 공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음악교육학

1) 발도르프 학교의 근거를 이루는 슈타이너의 사상 및 이론은 상당히 깊이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논문에서 완전하게 이해하도록 제시하는 것은 쉽지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이념인 슈타이너의 인지학 및 기질론,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유아 및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교사교육제도에 대하여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을 근거로 하여 설립한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인간중심의 열린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대 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슈타이너는 전 교육에서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였고, 아동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고할 때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사상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교육이념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20세기 중반이후에 그의 교육이념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발도르프 학교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자체를 하나의 예술이라고 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과 이러한 이념에 의거하여 세워진 학교교육이 우리의 학교 음악교육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학교연혁

발도르프 학교는(Waldorfschule) 슈타이너(Rudolf Steiner, 1861-1925)²⁾의 교육이념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이다.³⁾ 1919년 9월 7일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최초로 세워진 발도르프 학교는 8학급의 256명의 학생들과 12명의 교사로서 시작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담배공장 노동자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공장의 이름을 따서 '자유 발도르프 학교'라고 명명하였다. 자유 발도르프 학교는 당시 슈타이너에 의해 시작한 새로운 학교 운동이다. 학교의 설립은 1921년에 스위스의 도르나흐(Dornach)와 쾰른(Köln)에 세워진 자유발도르프 학교를 시작으로 1922년에 함부르크와 에센, 1923에 네덜란드의 덴하(헤이그), 1925년에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고 1928년에 미국으로 이어졌다. 1938년에서 1941년 사이의 독일 나치 정권 안에서 발도르프 학교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으로 인하여 잠시 폐쇄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한 1945년 이후에 다시 설립되기 시작하여 1925년에는 학교의 수가 모두 25개나 되었다. 발

2) 루돌프 슈타이너는 1861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국경인 크랄예벡(Kraljevec)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철도공무원으로서 슈타이너는 어린 시절을 전원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노이되르플(Newdörf)의 마을학교를 거쳐서 중등과정인 실과학교(Realschule)를 졸업하고 비인 공과대학에 다녔다. 어린 시절부터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슈타이너는 대학에서 괴테 연구가였던 슈라이어(Karl Julius Schröter)교수를 만나 괴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은 괴테의 인식론 및 세계관에서 비롯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았다.

3) 발도르프 슐레(Waldorfschule)는 공적으로 불리우는 학교명이다. 그러나 설립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슈타이너 학교(Steinerschule)로도 불리운다.

도르프 학교는 70년대 이후에 급증했으며 1994년에 파악된 학교의 수는 150여 개를 이른다 현재 전세계에 설립한 발도르프 학교는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50개국에서 약 640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2. 슈타이너의 인지학

슈타이너의 교육이념은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⁴⁾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인지학은 “인간의 지혜”라는 어원을 가진, 인간중심의 사고에 대한 사상으로 슈타이너에 의해 창안되었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인간과 세계 안에서 정신적인 본질을 직관하도록 하는 인간의 인식능력에 대한 발달이론이다. 즉 인간의 본질 속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우주에 내재해 있는 정신현상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학은 이론의 체계라기 보다는 정신적-영혼적 삶 자체를 의미하며, 슈타이너는 이러한 인식능력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자아에 의해서 발달하는 것이며, 인간 자신이 근원을 스스로 깨달아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독일 관념론에서 나타나는 인간발달 이념 및 인간상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고 독일 관념론은 슈타이너가 교육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다.

인지학의 근거는 인간학이다. 즉, 올바른 교육은 먼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인간본성의 겉 표면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 밝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접근으로서 자신의 사상을 제시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육체(Leib), 영혼(Seele), 정신(Geist)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⁵⁾

1) 인간의 육체 : 육체적 본성으로서 인간은 동물 또는 식물과 같은 세계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 또는 식물과 다른 점은 신경조직과 뇌의 구조가 독특한 점이다.

2) 인간의 영혼(또는 마음) : 인간의 인식작용은 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감각

4) 인지학Anthroposophia은 그리스어의 인간Anthropos와 지혜Sophia의 합성어이다. 뜻을 풀이하면 문자 그대로 ‘인간에 대한 지혜’를 의미한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그리스 어원에서 의미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즉 인간에 대한 지혜보다는 ‘인간 영혼에게 지혜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슈타이너의 인지학안에서 보는 인간학의 체계는 일반 철학안에서 제시하는 인간본질의 체계와 다르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에서의 단계	일반철학에서의 단계
- 정신	- 영혼
- 영혼	- 정신
- 육체	- 육체

(empfinden)에 의해서이기도 하며, 감정(Gefühl)과 의지(Wille)가 작용한다.

3) 인간의 정신 :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통하여 자신만의 세계에 존재하고 정신을 통하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삼중구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정영수,1998).

	육체적표현	영혼적표현	정신적 표현
육체	신경,감각체계	사 고	깨닫는 의식
영혼	심장,폐 체계	느낌(동정/반감)	꿈꾸는 의식
정신	신진대사, 수족체계	의 지	잠자는 의식

이 세 가지의 인간학적 체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슈타이너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의 감각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 세계, 영혼을 통해 구축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 그리고 정신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세계를 넘어선 자신에게 나타난 고유한 세계의 영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층을 상세하게 나누면 다시 9단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

몸(육체적 본성) : ① 신체적 몸

② 생명 몸(에테르체),

③ 혼 몸

혼(혼적 본성) : ④ 감각 혼,

⑤ 오성 혼,

⑥ 의식 혼

정신(정신적 본성) : ⑦ 정신자신

⑧ 생명정신

⑨ 정신인간

슈타이너에 의하면 참된교육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체(Leib), 영혼(Seele), 정신(Geist)으로 이어진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먼저 본성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단계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가도록 하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인지학적 사상에 의해서 실천되도록 한다.

슈타이너는 1893년에 발표한 저서 『자유의 철학』을 기점으로 '정신과학운동'을 시작한다.⁶⁾ 자유란 슈타이너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중시한 것이다. 슈타이너에 의한 자유의 개념은 인간의 본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초감각적인 것을 초월한 자유를 의미하며, 인간은 스스로 본질을 깨달았을 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면 인간 본질의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3. 음악교육의 목적 및 철학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은 어린이의 영혼에 필요하다'는 것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일반학교 교육에서처럼 독립된 교과로서 학습목표를 음악의 인지적, 심동적, 표현적, 정의적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이것은 음악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적인 사실에 목표를 두는 일반학교 음악교육과 다소 구별되고, 초등 교육과정도 음악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그림, 수학 등의 교과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서 시작한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슈타이너 교육사상에서 중시하는 예술교육을 위한 것으로서, '예술교육은 곧 인간교육이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슈타이너에 의하면 음악은 어린이의 영혼을 자극하여 인간을 잘 자라게 한다. 어린이는 음을 통해서 감각을 열어 자신의 내면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안정은 곧 주의집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혼을 위해 유익하다고 본다. (주의집중은 어린이가 노래 또는 악기를 연주할 때 자신의 신체기관- 호흡, 귀, 눈, 뇌, 손, 발등-의 움직임과 자신의 고유한 맥과 관계하여 작용한다). 영혼을 자극하는 음악적 요소는 음, 리듬, 소리의 울림 등이다. 음악은 5세의 유아교육과정에서 라이어(Leier)와 함께 모방학습으로 시작하여 초등 1-2학년에서의 음악교육은 모든 교과수업 안에서 수업내용과 통합시켜 사물의 개념을 배우는데 사용하며 동시에 음악으로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음악은 거의 모든 수업시간에 항상 동반되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숙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음악교육을 받게 되는 것과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음악에 대한 친숙함을 보다 깊은 영혼으로 받아드리게 됨으로서 음악을 좋아하는 인간으로 성장하여 결국 슈타이너가 지향하는 음악교육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은 음악을 위한 교육(Erziehung zur Musik)이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한 인간형성(Erziehung durch 타Musik, Menschenbildung durch Musik)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슈타이너는 이 정신과학 운동을 1913-23년 도르나흐에 건립된 괴테아눔을 근거지로 출발한다. 괴테아눔(Goetheanum)은 슈타이너가 자신의 인지학적 정신과학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근거지로 세운 건축물이다. 이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슈타이너가 얼마나 괴테의 사상을 중시했는지 알 수 있다.

슈타이너는 교육단계를 그가 정한 인간발달단계를 기준한다. 인간발달단계는 모두 7년을 주기로 하여 네단계로서 다음과 같다.

단 계	나 이	구성체 개념	교육 단계
첫 번째	탄생	물리적 신체	제1단계(학령전 교육)
두 번째	7세	생명체	제2단계 (초등과정 8학년)
세 번째	14세	감정체	제3단계 (중등과정 7학년)
네 번째	21세	자아체	제4단계 (대학교)

슈타이너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정은 교육단계의 7년 주기 중에서 제2단계(1학년-학년, 7세-14세)와 그 이후의 상급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초등 교육과정인 이 시기는 감정교육을 중요시하므로 어린이들이 예술교육을 통해서 감정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음 또는 소리 체험을 통해 감성을 발달시키고, 자신의 고유한 내면세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옳은 음에 의한 교육이 곧 어린이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서 내면세계를 이루도록 하고, 이것은 나아가 영혼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음악을 독립적으로 수업하지 않고 타 교과와 통합적으로 수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즉 어린이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잘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악이외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그 관련성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으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음악학습에서 적용하는 자연의 모방형태인 이야기음악, 오이리드미 등은 바로 이러한 개념인식을 위한 관련학습으로 이해된다. 상급단계가 시작하는 9학년부서의 음악교육은 전문적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음악학습은 음을 통한 감정교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내용 및 실기를 병행하여 음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경험을 목표로 하여 실시한다.

4. 슈타이너의 음악관

인간의 본질인 육체, 영혼, 정신에서 음악은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으로서 보는 슈타이너의 음악관은 ‘세계의 본질은 음악에 있다’⁷⁾고한 그리스적 세계관과 독일의 판문론 안에서의 음악교육이념을 근거로 하여 종합된 것으로 본다. ‘인간본질은 곧 음악의 본질이다’라고 한 괴테의 음악관은 페스탈로찌에 의해서 실재적으로 교육에 적용되었고, 후에 슈타이너에 의해서 비

7) ‘세계의 본질이 곧 음악에 있다’고 하는 주장은 그리스시대의 음악관에서 출발한다. 음악의 윤리적(Ethos) 가치 안에는 두 가지의 사고를 내재한다. 하나는 음악과 자연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음악과인간의 영혼에 관한 것이다. 음악과 인간의 관계는 영혼의 움직임과 관계하는데, 움직임은 일정한 수열 성을 가지고있고, 수열성은 바로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인간 영혼의 수열 적인 움직임과 음악은 일치하고, 따라서 음악의 선율, 리듬의 움직임과 인간의혼적 움직임(Seelenbewegung)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근거로서 선율과 리듬에 의한 음악의 움직임은 우주(Weltganzen)의 본질과 일치한다. S. Abel-Struth(1985) 참조

공식적 교육으로서 실천된다.⁸⁾

슈타이너의 음악관은 후에 시민적 음악생활에 기반을 가지고 오는 계기를 준 19세기 음악문화와 음악교육에 역할을 한 괴테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당시 음악교육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시민적 음악문화'는 음악교육을 일반교육의 하나로써 출발하는 장으로 만들게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된 채 음악문화는 한편으로는 예술교육(Musische Bildung)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적 교육(Ästhetische Erziehung)으로 그 방향을 이어나간다. 예술교육은 체계적이고 기술적 접근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음악과 삶의 재결합', '음악의 본질', '노래하는 인간', '음악·언어·움직임의 통합(Einheit von Musik, Sprache und Bewegung)'⁹⁾와 같은 주제들로 다루어졌다.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교육이 음악의 특징적인 영역, 기교적인 영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음악을 인지학에 연결시켜 실행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악·언어·움직임의 통합은 오이리트미를 창안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5. 기질론과 음악교육

슈타이너가 분류한 4가지의 기질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적인 교육 안에서 아동의 기질에 대한 파악은 아동이 어떤 인간상으로 형성되는가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음악교육 안에서 아동의 기질은 어린이가 선택할 수 있는 악기의 특성과 연결된다. 즉 아동의 기질과 악기와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만 바른 음악교육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

8) 공교육에서의 실천은 케스텐베르그(Kestenberg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대 음악문화사에서 음악은 한편으로는 교육적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학적 방향으로 발달하였는데, 음악교육 방향으로의 흐름은 루소 → 헤르더(Humanisierung durch Musik) → 괴테(Individualisierung des Menschen durch Kunst) → 페스탈로찌(음악교육에 실제 적용)/네겔리, → 케스텐베르그/(슈타이너) → 20세기 미국의 Mursell →등으로 이어졌다. 음악교육은 초기에는 Musische Bildung에서 Musikerziehung(즉 예술적 교육에서 음악교육으로)으로 변천하였다.

음악 미학적 방향은 루소 → 칸트 → 쇼펜하우어(화성론에 의한 음악교육사상의 출발. 화성 = 음악의 조화로움을 대표한다) → 에서 이어옴.

- 무지예빌둥Musische Bildung은 20세기초에 시작한 예술교육운동이다. Musischen의 의미는 고대의 음악관에서 근거하는데 음악, 리듬운동(신체움직임), 시의 통합을 뜻한다. 따라서 언어, 음악, 움직임을 통합한 예술의 형태로서 무지예빌둥은 당시 사회의 계층성을 가진 예술문화이다. 음악교육에서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특정성을 부여하지 않고 종합적인 시민 예술 문화로서의 삶의 본질에 적용하는 것이다.

- 헤르더(Herder)는 초기에 뉘켄로더(Wackenroder)와 같이 가창교육을, 후기에는 기악교육을 지지하여 기악음악을 통해서 음악과 인간내면과의 관계를 역설했다. 기악은 곧 '음'자체가 인간본질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즉, 기악의 표현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 괴테는 이러한 헤르더를 지지했고 기악음악을 음악의 본질로 간주했다.

9) 음악, 언어, 움직임의 결합은 이후로 칼 오르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유아 및 초등 음악교육에 적용되었고, 현재 초등음악교육에서 적용하는 통합적 음악교육의 하나로 발전하는 원조가 된다.

10) 오이리트미 참조

제로 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기질에 맞는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기질은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다혈질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교육은 어린이가 가진 자기의 기질에 의해서 접근방식을 다르게 하여야한다. 각 기질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 담즙질(choleric temperament) : 이유형의 인간은 모험을 좋아한다. 감정이 격하기 쉽고, 뜨겁다. 일을 진행할 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강한 의지로서 활동한다. 확신에 차있고 즉각적인 결단 및 반응을 한다. 성격이 급하고, 화를 쉽게 낸다. 자아가 강함으로 사고와 개념화를 잘한다. 열광적으로 빠질 수 있으며, 자신만의 정의감으로 남에게 강요한다. 때로는 공격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유형의 사람은 체형이 땅딸하고,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짧은 목을 가지고 있다.
- 2) 점액질(phlegmatic temperament) : 내적 조화와 안정감을 갖고 있다. 인내심이 강하고 조용한 성격이나, 수동적이며 게으른 인상을 준다. 남들이 화를 내는 일에도 잘 견디고 침착하게 받아들인다. 남에게 우호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남의 일에 방관하거나 냉소적인 면이 있다. 체형은 통통하며 앞으로 구부러진 사람이다.
- 3) 우울질(melancholic temperament) : 감성적이고 자아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비극적인 일에 쉽게 동화된다.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조용하고 진지하며 깊이 생각한다. 의지가 강하고 진실이나 이상에 따르기 때문에 완전해 지려는 경향이 있다. 몸이 마르고 허리가 꼳꼳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다.
- 4) 다혈질(sanguine temperament) : 우유부단하고, 성공에 대한 욕구, 표현력이 강하다.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졌다. 편견이 없고 낙천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유롭다. 번덕이 심하고 성격이 불안정한 면이 있다. 실수에 대한 자신의 반성이 부족하고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다. 그러나 대부분 건강한 어린이는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다.¹¹⁾

이러한 4가지의 기질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개개인에 대하여 파악해야하는 필수적인 것이며, 실제로 발도르프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진 각각의 기질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질론과 교육은 음악교육에서 특히 2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악기의 선택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기질과 가장 어울린다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악

11) 이러한 기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교사의 기질과 교육방법도 고려하여 적용하고, 교사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각 기질에 어울리는 악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담즙질 : 타악기.
- 2) 점액질 : 피아노 또는 오르간
- 3) 우울질 : 현악기
- 4) 다혈질 : 목관악기

이외에도 기질과 조성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즙질의 아이에게는 장조의 음악이 적합하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과 음악과의 관계는 성장 발달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6. 음악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1) 유아 음악교육

슈타이너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악조기교육을 지양한다. 음악은 5세부터 시작하는데, 초음단계에서는 교사가 어린이에게 절대로 음악을 가르친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한다. 라이어에 의한 음악유아교육은 어린이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라이어를 사용한 생명력 있는 리듬연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라이어의 음에서 나는 부드럽고 가냘픈 소리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를 감각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는 그 자체가 감각기관이며, 이 감각기관은 아직 외부세계에 무방비 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무방비 적 노출에 의해서 어린이는 마치 대지가 홍수를 만나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외적 자극에 의해서 점차 고유한 감수성이 손상되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침착성이 없어지고, 좌불안석이 되기 쉽다. 이것은 결국 아동의 민감성을 상실하게되는 원인이다. 라이어의 음은 바로 이러한 아동의 민감성을 자기 내면세계로 모으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라이어에 의한 음악을 가르치는 첫 단계는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2) 라이어를 통한 음악 교육

라이어에 의한 음악교육은 연주기술의 습득에 두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목표는 “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자연 속에 있는 숨은 소리를 자기의 감각(오관)의 일부분으로 일체화시켜 라이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어 교육의 첫째단계는 교사가 레미솔라시의 오음을 연주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이어〉¹²⁾

가. 라이어 제작

당시 음악가 ‘로탈 게르트너’와 조각가 ‘에드문트 프라흐트’에 의해 설계되고 바이올린 제작자가 만들었고, 악기 제조사는 현재 콘스탄츠시에 있다.

나. 라이어의 종류 및 구조

라이어의 종류는 유치원용, 초등학생용, 연주회용이 있고 이에 따라서 크기, 무게, 현의 수가 다르다.

종 류	구조(현의 수 및 무게)
유치원용	7현
초등학생용	12현 1kg
연주회용	40현 20kg
=	49현 (4 Oct.) C- C" " (반음간격)
= 소프라노	35현
= 알토	30현
= 테너	27현

다. 연주음역

- 초등학교용 라이어는 오음음계(Pentatonic)를 사용한다.

레미솔라시 (d' e' g' a' b', d" e" g" a" b")를 두 옥타브 안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도 (c')와 미 (e")음을 추가한다.

- 초등과정에서 9세까지는 레미솔라의 온음으로만 사용하는데, 반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반음의 소리가 아동들에게 부적당한 감성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에 반하여 오음계는 좌우방향으로 열려져 수평적으로 연주됨으로서 마치 어린이가 떠있는 기분을 가짐으로서 영혼을 사로잡는 듯하다.

12) 라이어(도, Leier, 그. Lyra)는 기원전 40세기말에 나타난 악기로서 수메르인의 대표적인 악기였다. 발굴된 유물 또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라이어는 현의 수가 4-5줄, 7줄, 8-11줄의 여러종류를 가진다. 악기의 모양은 원래 크고 입식으로되어 세워놓고 앉아서 연주했지만, 그리스시대에는 작게 만들어 손에들고 연주했다. 라이어의 발달은 악기의 변천과정에서 볼 수있고, 20세기에 들어 새로운 형태의 라이어가 1926년경 Edmund Pracht(1898-1974)와 Lothar Gaertner(1902-1979)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손으로 가법계들고 연주하도록 만들어진 이 새로운형태의 라이어는 Dornach지역에 밀집하던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공동체에서 1924년 고안된것으로 기록되고있다. 라이어는 초기에 단순한 음악오이리트미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후에 특수교육과 학교교육에 사용되었다.(MGG. 1998, 1938-1940)

• 오음음계를 사용하는 이유

펜타토닉은 음계 안에서 아래쪽, 윗쪽으로 열린 상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작음과 끝음이 동일하게 반복한다. 이러한 음 체계는 바로 9세까지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아동의 내적 상태와 일치한다. 즉, 이때까지의 아동은 아직 양발을 대지에 밟고 선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혼과 중력이 떠다니고 있다. 이것은 중세기의 그레고리오 성가와 그 이후에 발전한 장·단조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세사람들이 그레고리오 성가를 자신들의 영혼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믿었고, 그 이후에 화성의 발전(단성음악 Homophonie, 다성음악 Polyphonie)을 통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장조와 단조음악을 받아들이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아동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첫 단계로서 펜타토닉을 충분히 체험해야지만 점차적으로 보다 넓은 음계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이유에서이다.

라. 라이어 악기의 본질

음악교육 초기단계에서 반드시 라이어 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음음계와 관련시켜 풀수있다. 즉 오음음계는 바로 원음(原音)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따라서 연주악기도 원(原)악기인 라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원음은 곧 생명체를 가진 것으로서, 소리의 울림은 라이어의 현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피아노로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¹³⁾. 라이어는 단순한 노래 연주만을 위한 악기가 아니라 그 음 하나 하나에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처음 만들 때 마치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악기라는 의식으로서 만들었다. 따라서 라이어 제작을 위해 슈타이너가 설계한 건축 '피테아눔'과 'Eurhythmie'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악기로 창조되도록 했다. 즉 발도르프 학교에서 사용하는 라이어는 슈타이너의 사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형태로 재창작된 악기이다.

마. 수업진행의 예

라이어 시간은 주 두번으로 6-8명의 어린이들이 20분씩 교대로 연주한다. 유치원과정 뿐만 아니라, 초등과정의 처음단계에서도 사용한다.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에 별도의 렛슨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발도르프 학교의 시간표에는 '음악'과목이 따로 정해져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교과 수업을 하면서 필요한 음악을 병행한다(초등과정 예).

바. 수업지도 방법 및 내용

즉흥창작. 이야기 음악 만들기. 교사가 봄·여름·가을·겨울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13) 슈타이너는 피아노를 mechanisch한 악기로 여기고, 피아노의 음이 영혼을 열게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 물 또는 벌어지는 장면을 즉흥적으로 라이어로 모방연주 하도록 한다.

지도 예 : - (교사) “자,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나비가 날고 있네요.” 하고 라이어로 날 아
다니는 나비를 연주하도록 한다.

(학생) 학생들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라이너의 현으로 연주한다.

- (교사) “때로는 비가 죽죽 내릴 때도 있지요. 그것도 들려주세요.”

(학생) 7현 모두 힘차게 되풀이하여 치면서 비가 내리는 연주를 한다.

- (교사) “가을에는 바람이 분다. 그것이 나뭇잎을 하늘하늘하게 한다”

(학생) 라이어로 연주한다.

- (교사) “가을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

(학생) 레, 미, 솔음으로서 살짝 치며 별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라이어로 자연을 모방함으로서 자신을 자연과 일체화시킨다. 즉 라이어는 어린이의 마음속에 있는 나비 또는 별의 소리가 울려나도록 하는 감각의 일부분이다. 학생들은 즉흥적으로 연주함으로서 자신이 라이어 연주로서 모방표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나비, 별 등이 되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

3) 초등 음악교육

초등과정에 들어가면 1학년에서 처음에 라이어를 사용하지만 점차 '리코더'를 사용한다. 음악 교과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포크 수업을 할 때 통합적으로 다루어진다. 때문에 리코더는 음악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담당 교사들도 연주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습지도가 일반교과목과 예술교과와의 통합적 학습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과 예술(음악 및 미술)과 관련된 지도방법은 학습전개 안에서 필수적이다. 국어, 수학, 어학(영어)교과의 에포크 수업을 예로 들어 음악과 통합적 지도로 실시한다. 통합학습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일반 에포크와 연극, 율동, 그림 등도 통합하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이 단계는 예술체험에 의해서 사물(세계)을 인식하는 시기로 간주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유로운 상상력이 색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때문에 개념이해를 목표로 한 일반교과와 예술교과의 통합에 의한 관련학습은 어린이의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체험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어린이는 표상과 기억에 대한 능력의 발달시기 라는 점을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학습지도방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행한다.

가. 학년과 음악 교육과정의 예

학 년	악 기	음악학습내용 및 학습방법
유치원	라이어 리코더	오음으로 모방음악 만들기
1학년	리코더, 바이올린	오음음계를 사용한 자연의 모방음악(이야기음악)
2학년	전공악기	.
3학년	.	3도, 5도 음정 및 장·단조음악감상
4학년	.	음계, 옥타브, 악보 읽기
5학년	.	작곡가와 작품감상 및 이해
6학년	.	모차르트 전기 및 작품분석 및 이해
7학년	.	슈베르트
8학년	.	베토벤 (예술과 인간)
9학년	.	바그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는 에포크 수업형태는 Oberstufe¹⁴⁾과정이 끝나는 8학년까지 적용한다. 9학년부터는 학습내용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음악교육과정의 내용 및 방법이 전문화된다.

나. 리코더 사용의 목적과 연습방법

리코더(recorder, 도, Blockflöte)는 1학년 첫 음악시간부터 사용한다. 리코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내는 연주기법과 관계한다. 즉 소리를 낼 때 사용하게되는 손가락과 호흡을 정확하게 조절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감각을 조절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하게된다. 이것은 슈타이너가 어린이의 사고를 점차로 주관세계에서 객관세계로 이끄는 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¹⁵⁾

리코더의 연습은 일반학교에서처럼 텅킹 주법에 의한 소리내기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모방하며 리코더로 리듬표현 한다

- (교사) “문 앞에서 누가 노크했어요. 한번 흉내내 보세요”.
- (학생) ‘똑똑’ 소리를 낸다. 이때 남학생은 센 소리로 두들기고, 여학생은 여린 소리 로 두들긴다.
- (학생) 리코더로 이 두 가지의 소리를 구별하여 연주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연습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해하지 않는다.

14) 초등학교 기간은 총 8년이며, Oberstufe는 초등학교의 고학년 과정이다.

15) 유치원에서 라이어에 의한 표현연주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따라서 라이어를 학년에 높아지면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악교육안에서 슈타이너의 인지학에서 요구하는 주관에서 객관의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이 리코더에 의해서 시작된다.

다. 수업진행의 예

(국어 에포크와 음악)

수업내용 : 성프란시스코의 전설, 대상 2학년

수업지도방법 :

- 약 두 주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기 위해서 첫 주에 배운 내용을 연극 형태로 복습한다(열 명의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연극놀이를 한다, 앞에 나온 학생 그룹(A)이 이야기 놀이를 담당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그룹(B)과 뒤쪽의 학생그룹(C)이 자기들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야기를 하거나 리코더 연주를 하는 교차적 형태로 진행한다).
- (그룹B) 중세의 종교 음악 중 펜타토닉의 선율을 한 곡 리코더로 부른다.
- (= A) 이야기 줄거리 읽기
“옛 날에 어떤 도시에 사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돈이 많은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이며,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라고 불렀습니다”.
- (= B) 리코더로 선율 연주
- (= A) 이야기줄거리
“어느 날 프란시스코가 기사차림을 하고 멀리 가려고 했을 때 마음 속에 말소리가 들렸습니다(남자학생들이 말처럼 올라탄다). ‘너를 가장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주인이냐, 하인이냐?’(여학생)
- (= C) 라이어로 프란시스코가 마음속에서 올려온 목소리를 연주한다 : 솔솔라시레 시라솔미레미솔솔미레미솔라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야기와 음악을 통합적 방법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오음음계로서 즉흥연주를 하여 선율 화한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의 동작을 중심으로 전원 또는 한, 두 명의 학생이 리코더와 라이어를 교대로 즉흥연주 한다.
- 1, 2학년에서는 악보를 가르치지 않는다. 교사가 연주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한다(모방 학습).
- 펜타토닉 안에서 다양하게 즉흥연주를 하는데, 선율의 진행은 항상 이야기, 또는 수업의 대상에 어울리도록 창작한다.
- 수업중간에 학생들이 지루해지거나 또는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포르멘(formen)을 한다. 포르멘(Formen)은 ‘형태’를 그리는 것으로써, 직선, 둥근선, 나선 등을 1cm의 폭으로 선을 그어 칠하면서 그린다. 포르멘을 하는 목적은 수업중의 지루함을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색을 함으로서 자신의 기질, 즉 정서감, 자신감등을 발 달 시키는데 있다. 또한 선적 움직임을 통해서 후에 높은 학년에서 배우는 기하·문법

- 포르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족한 후에 다시 수업으로 되돌아간다. 이때에도 또다시 새로운 노래를 부르거나 리코더, 라이어로 선율을 연주한다. 즉 음악을 연주함으로서 학생들이 감각을 집중하여 스스로 수업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수학 에포크와 음악)

수업내용 : 로마숫자 개념이해 (I, II XII), 대상 1학년

수업지도방법 : 12명의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1-12까지 손으로 일정 박을 치며 숫자를 말한다. 여러 번 반복한다(같은 빠르기를 유지한다)
- 수열에 각 2자리씩 마디를 주고, 마디의 첫 숫자에 강세를 주며 읽는다.
- 앞에선 12명의 학생들 중 1, 3, 5, 7, 9, 11자리의 '강'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숫 자를 읽을 때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한발씩 나오며, 2, 4, 6, 8, 10, 12의 학생들은 뒤로 한발씩 나간다
- 홀수 열에는 '솔'음, 짝수 열에는 '미'음으로 음정을 넣어 읽는다.

(수 열)	1,	2 / 3,	4 / 5,	6 / 7,	8 / 9,	10 / 11,	12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강	약 → 읽기
(발리듬)	↓	↑	↓	↑	↓	↑	↓	↑ → 움직이기
(음 정)	솔	미	솔	미	솔	미	솔	미 → 음 노래하기
								↓

- 리코더로 숫자노래를 연주한다. → 리코더로 연주하기
- 학생들이 리코더로 연주하면서, 동시에 앞의 12명의 학생들이 발 리듬을 표현한다. (마치 뼈꾸기처럼 움직이며 숫자노래를 한다)

리코더는 음악 및 일반교과 수업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악기이다. 그러나 리코더로서 음악을 좀더 전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2학년 2학기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부모와 상의하여 전공악기를 하나씩 선택하도록 하고있다. 대개의 학생들은 처음에 바이올린을, 그리고 첼로, 피아노 등을 선택하는데, 악기를 선택할 때는 학생 개개인의 기질과 관계하여 어울리는 것으로 한다.

4) 전공악기 렛슨 및 음악활동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학생 모두가 의무적으로 하나의 악기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저학년(초기

단계)에서는 담임교사가 랫슨을 한다. 라이어-리코더-전공악기 : 현악기(바이올린-첼로)-피아노, 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옮겨간다. 전공악기 랫슨은 더이상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지 않고 음악대학(Musikhochschule)또는 콘서바토리움 소속의 교수 또는 강사가 한다. 악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다. 발도르프 학교의 음악활동은 오케스트라, 클래스 합주, 발표회 등이 있는데 학생들은 자기 전공악기를 가지고 이중의 어떤 활동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학생 전체가 다 참여하는 음악축제는 계절별로 맞이하는 종교 축제일에 따라서 열리고, 연주되는 음악도 해당 축제의 내용 (예를 들어 어드벤트, 카니발, 5월 축제(Maifest), 10월 축제(Octoberfest))등과 연결된다.

7. 오이리트미(Eurhythmie)

오이리트미 개념은 원래 달크로즈가 개발한 음악교수법에서 근거한다.¹⁶⁾ 오이리트미의 어원은 합성어로서 Eu는 좋다, 아름답다는 뜻이고, rhythmie는 리듬학이라는 뜻으로서 미적 리듬학 습을 의미한다. 오이리트미 안에서 인간의 몸은 곧 악기이다. 음악에서 악기는 음으로서 인간이 표현하고자하는 감정을 나타내듯이, 오이리트미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 악기로서 내면의 감성을 외부로 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출하는데 있어서 슈타이너의 오이리트미에서는 법칙을 준수하며, 자의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은 배제된다.¹⁷⁾ 슈타이너의 오이리트미의 특징은 음악을 포함

16) 오이리트미(도, Eurhythmie, 영. 유리드믹스 Eurhythmics)는 스위스의 음악교육가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가 개발한 세 가지의 음악교수법 중 하나로서 1891년 제네바 음악원에서 강의할 때 창안한 것이다(음악과 민족, 임미경, 1993 참조). 즉,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하면서, 읽고 쓰면서 동시에 신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리듬감, 음정, 조성에 대한 감각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기법을 고안했다. 즉 인간은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귀', '움직이고, 느끼고, 감각하는 몸', 상상하고, '판단하며, 교정 할 수 있는 머리'를 결합하여 움직임으로서 음악적 요소를 인식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출발은 인간의 삶이 생체리듬인 맥박, 호흡에 근거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따라서 음악리듬도 음악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요소로서 마치 삶을 이어주는 생체리듬과 같은 것이라고는 데서 온 것이다. 따라서 음악의 리듬과 삶의 리듬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달크로즈는 음악을 배우려면 먼저 리듬운동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어서 리듬-선율-화성-셈여림-형식 등을 바로 움직임을 통해서 배우면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신체를 시간, 공간, 에너지의 비율로 균형 있게 움직여야한다. 움직임은 곧 느낌과 연결되고, 느낌은 두뇌에 감각을 보내 신경을 통해서 몸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시간, 공간, 에너지, 균형인 생리학 및 물리학 그리고 근육운동 감각, 감정, 두뇌, 정서의 심리학이 연결된 음악교수법이 바로 오이리트미 이다. 오이리트미의 움직임은 네 가지의 순서로 진행한다 :

단 계	반 응	움직임 형태
1단계	준 비	숨을 들이쉬고 박의 빠르기를 재기 위해 손과 발을 들어올린다
2단계	개 시	숨을 내쉬며 손뼉을 친다.
3단계	연 장	박의 길이를 느끼기 위해 선을 그대로 잡고 있다
4단계	준비로 돌아가기	숨을 들이쉬면서 손을 벌리려 한다.

17) 즉 이러한 점이 슈타이너가 인지학을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오이리트미 체계안에서

한 모든 예술 및 교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¹⁸⁾ 따라서 사물에 대한 개념학습, 교과 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도 다양하게 사용한다.(언어-, 도형 오이리트미등)

1) 음악 오이리트미

새의 주제를 가진 음악이야기를 오이리트미로 표현한 예 :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새의 움직임 을 술과 레 음으로서 음이 연주되면 학생들은 그 음을 듣고 팔을 움직이면서 새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새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표현을 위해서

- (교사)는 술, 높은 레, 술, 낮은 레 음을 새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하며 친다.
- (학생) 새의 움직임을 뜻하는 세 가지 표현을 한다. 하늘 (팔을 위로 향하게 올림), 둥지(팔을 가운데로 앞으로 정렬한다), 땅(팔을 아래로 내린다)
- 기본동작이 익숙해지면 교사는 하늘, 둥지, 땅을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템포를 변화 시켜 같은 음으로 연주한다.
- 학생들은 이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인다. 움직임을 익숙해지면 즉흥연주로 표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쉽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으로 옮겨간다. 움직임은 감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 먼저 이해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지양한다. 교사가 연주한 음도 반드시 술 또는 레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으로 칠 음악 오이리트미는 음 하나 하나에 내재하는 감정을 몸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에는 법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마음과 몸이 음과 연결되어 움직임 안에서 잘 순화되도록 한다. 세 가지 주제인 하늘, 둥지, 땅을 위, 가운데, 아래쪽으로는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2) 언어 오이리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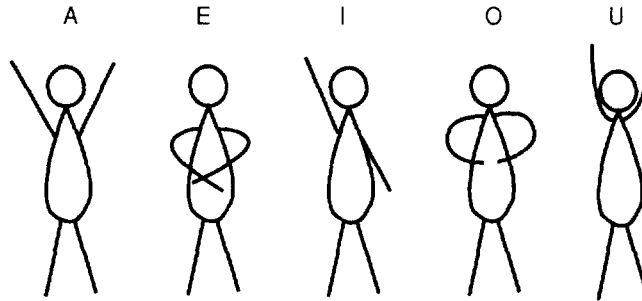
- A. E. I. O. U 문자 표현한 모습
- 단어의 표현

볼 수있는 예이다. 즉 움직임을 법칙을 준수하는 객관적 표현은 분명한 의식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8) 달크로즈의 오이리트미를 적용하는 오늘날의 학교 음악교육에서는 오이리트미를 음악학습안에서 음악의 기본개념 학습, 그리고 음악 및 신체표현의 통합학습에서 적용한다. 따라서 슈타이너에 의한 오이리트미와 차이가 있다.

음절	신체표현
I-A-O(이아오)	오른팔을 위로 왼팔을 아래로 뻗어 보이고, 잇달아 양쪽 팔을 펴서 위로 내밀고 동그랗게 합친다.
Wu-Wu-(부-부-)	동그라미 속으로 몸을 내밀 듯이 하며 뛰어나가면서 바람이 부는 듯 양손으로 힘차게 내리치면서 작은 산 모양으로 움직여서 갑작스럽게 공간으로 밀어 올리면서 달린다.
Welle!	양손으로 구불구불하게 헤엄치듯 움직인다.
Schiff	드레스 차림으로 오이리드미 신발을 신고 오른팔은 이마 위에, 왼팔은 허리 앞에서 동그랗게 구부려서 배 모양으로 표현한다.

<언어 오이리드미를 표현하는 모습>



8. 교사교육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는 국가차원에서 양성되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가 직접적으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발도르프 학교의 자체 교사양성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교사교육과정을 거쳐서 양성되어 진다. 특히 교수-학습을 교사가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마련된 수업형태는 교사교육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적용되고, 이에 따라서 공립학교 교사양성과는 다른 형태로 발도르프 학교자체의 고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독일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양성 기관은 슈트트가르트의 발도르프 교사교육 세미나(1928/1945) 및 Witten/Ruhr 지역의 발도르프 교육학 연구소(1973)가 대표적이다. 국가차원의 교사교육을 졸업한 교사들이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담임교사와 전문교사를 맡기 위해 1년간 추가교육을 받는데 이 경우에는 슈트트가르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처음부터 발도르프 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영역에 따라서 3-5년간의 교사양성과정을 받아야 하며 Witten/Ruhr의 교육학연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 교사는 담임교사와 전문교사로 구성 하고있다. 이중에 특징적인 것은 초등 1-8학년까지 8년간 학생들은 같은 학급 안에서 같은 담임교사제 이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8년 동안 학생들의 특성을 관찰하며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하여 소질을 계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과의 인간적 유대를 중시해야하며, 학생을 가르침으로서 아동의 개인적 성장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사자신의 성장도 도모한다. 8학년이 지나면서 9학년부터는 각 전공에 따라서 전문교사가 담당한다.

Ⅲ. 결론 및 우리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단순한 이념 만으로서가 아니라, 현대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인간의 자유, 예술로서의 교육이 그것이다. 현대 학교는 점차적으로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인 역할로서 만족하려고 한다. 20세기 교육의 가치가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21세기는 슈타이너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 교육에 대한 완전한 실현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특히 기능적 지식전달의 교육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소멸되고, 비본질적 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우리 학교 교육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교육과정의 발전을 살펴보면 홍익인간을 목표로 하는 인간교육의 실현이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대단히 상실되었고, 상급학교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최상의 목표달성으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슈타이너의 교육이념 및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을 하나의 모델로 하여 미래의 학교 음악 교육과정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발도르프 학교에 관한 연구는 일반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음악을 포함한 예술교육 부분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슈타이너의 예술교육사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음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비교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음단계로서 우선 슈타이너에 대한 일반적 사실과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강상희(1993). 발도르프 교육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수(1998). 슈타이너의 인간이해. 크리스찬 아카데미“생명가치와 교육” 연구모임 발표자료.
- 정혜영(1997). 발도르프 학교(Waldorfschule)의 초등교육 실제 탐구. 초등교육연구, Vol.11. 한국교육학회.
- 임미경(1993). 개념놀이 「유리드믹스」 (Eurhythmics). 음악과 민족 제6호, 민족음악연구소.
- 함희주(1997). 창의성계발을 위한 음악교수-학습사례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16집, 한국음악교육학회.
- 子安美知子(1994). 최시원 역. 슈타이너 학교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1996).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이야기. 임영희, 이연현 옮김, 밝은누리.
- _____ (1996). 독일의 자존심 슈타이너 학교. 임영희, 이아야 옮김, 밝은누리.
- Abel-Struth, Sigrid(1985). Grundriss der Musikpädagogik.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Schott's Söhne, Mainz, Germany.
- Kiersch, H.(1978). Freie Lehrerbildung. Stuttgart.
- MGG(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1998). Leiern. 1938-1940 쪽
- Reu Wilkins.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론. 고려대 교육사 철학연구회 옮김(1997), 내일을 여는책.
- Steiner, R.(1986). Kunst und Kunsterkenntnis. Rudolf teiner Verlag, Dornach/Schweiz.
- Steiner, R.(1986). Eurythmie. Dornach/Sweiz.

ABSTRACT(Die Zusammenfassung)

Musikerziehung an der Waldorfschule nach der Erziehungsidee Rudolf Steiners

Hee-Ju Ham

Die Waldorfschule ist eine alternative und reformative Schule. Im Jahr 1919 begründet die Schule zuerst in Stuttgart von Rudolf Steiner. Seither wurde die Waldorfschule nicht nur in Europa, sondern auch in vielen anderen Ländern besonders in USA, Asien usw. eröffnet.

Die Ansicht zur Erziehung R. Steiners ist die Menschenbildung. Um seine Erziehungsziel zu gut begründen, hat er das Konzept der Anthroposophie konzipiert. Die Anthroposophie bedeutet die Sophia vom Menschen. Die Erziehung der Menschen muss nach Grundsatz der Anthroposophie geplant werden.

Die Arbeit beschreibt über die Erziehungsidee Steiners zur Waldorfschule im folgenden Inhalte.

1. Die Entwicklung der Waldorfschule,
2. Die Anthroposophie
3. Das Ziel der Musikerziehung und philosophischer Ansatz
4. Die musikalische Meinung Steiners
5. Der Leib und die Musikerziehung
6. Das Curriculum und die Unterrichtsmethode
7. Die Eurhythmie
8. Die Lehrerbildung.